

# 의상[義湘]

## 우리나라에 화엄의 법을 전한 해동 화엄초조(海東華嚴初祖)

625년(진평왕 47) ~ 702년(성덕왕 1)



의상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 1 개요

의상(義湘, 625~702)은 7세기에 활동한 신라 승려이다.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나라에 화엄 사상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크게 융성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불교 최초의 종파로 화엄종(華嚴宗)을 자리 잡게 하였기 때문에, 해동화엄초조(海東華嚴初祖)로 추앙받는다. **관련사료** 그는 많은 제자를 키워 불교가 크게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또 관음신앙을 확산시켜 불교 대중화에도 기여하였다.

### 2 당으로 가 화엄의 법을 배우다

의상(義湘)은 625년(진평왕 47) 김한신(金韓信)의 아들로 신라 왕경(王京, 지금의 경북 경주시)에서 출생하였는데, 그의 집안은 당시 최고 신분층인 진골(眞骨)이었다. 19살에 왕경에 있던 황복사(皇福寺)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관련사료** 의상은 출가한 후 받은 법명(法名)인데, 한자 표기가 義相이나 義想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가 누구에게서 불교 교학을 배웠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동안 8살 연상으로 그와 함께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원효(元曉)와 함께 공부했으며, 둘이 고구려에서 넘어와 완산주(完山州, 지금의 전북 전주)에 머물던 보덕(普德)을 스승을 삼았다는 전승도 있다. 의상은 당시 저명한 승려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불법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중국 당(唐)으로의 유학을 결정한다. 동료 원효와 함께 유학길에 오르는데, 26살이던 650년(진덕여왕 4)에 육로를 통한 1차 유학을 시도한다. 그러나 요동에서 첩자로 오해한 고구려군에 잡혀 되돌아 왔다. 둘은 661년(문무왕 1)에 재차 유학길에 올랐지만, 도중에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유학을 포기한다. 의상은 불법을 알고자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원효와 헤어져 바다를 통해 홀로 당으로 건너갔다.

당에서 의상은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서 화엄 교학의 기초를 다진 중국 화엄종(華嚴宗) 제2조 지엄(智儼, 602~668)에게 8년 동안 화엄 사상을 배웠는데, **관련사료** 668년에는 화엄 교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를 지어 지엄에게 인정받았다. 이